

11. 미가 -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회복”

미가 1장 1절

1.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 6장 6-8절

6.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말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는...

아모스는 유다의 선지자였지만 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했고, 호세아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비슷한 시기에 예언을 했습니다. 패역했던 이스라엘에서 아모스는 ‘정의’를 이야기 했고, 호세아는 ‘사랑’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남유다에 다시 예언자를 세우셨는데, 첫 번째는 이사야요, 두 번째는 미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와 그 시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 1장 1절**

1.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의 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미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모레셋’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지명은 유다 구릉지의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미가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언을 하며 자주 사용하는 관용적 표현 ‘내 백성들아!’라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마을 유지나 장로들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말할 때, 어떤 결정권을 가진 장로들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말할 때 ‘내 백성들아!’라는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측하는 바, 미가가 모레셋 지역의 장로였을 것이라는 정도입니다.

미가서의 특징은 아주 과격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나이 지긋한 장로가 백성들에게 말을 한다면 부드러운 어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가는 하나님께서 이곳을 모두 갈아엎을 것이라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유심히 본다면 상이한 지명 두 개가 등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사마리아’요,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지명이고,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유다 사람이었지만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미래를 동시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유다보다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땅과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남쪽 유다는 베냐민과 유다 족속으로,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나머지 10개 족속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부강했던 이유는 학문과 선진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B. C. 701년 앓수르 왕 산헤립의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함락을 당했지만, 남유다 예루살렘 성은 함락시키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남유다에 복과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북쪽의 학문과 기술이 남유다로 넘어왔고, 부를 가진 많은 사람들도 남유다로 찾아왔습니다.

유다의 사람들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신들의 나라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미가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예언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며 타산지석으로 삼으십시오! 구원과 심판은 모두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다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처럼 남유다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미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안전의식을 갖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미가가 예언하던 시대에 그들을 현혹케 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심판 없는 구원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망가뜨리는 자들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지만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심판을 모르는 ‘구원’은 우리를 그릇된 안전의식에 빠지도록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치 칼날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위태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용서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자식의 잘못에 대하여 명확한 징계를 가합니다.

계속해서 잘못을 범하는데도 징계하지 받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김동호 목사님과 함께 방송을 하며 ‘구원과 회개’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아주 인상적이었던 말이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아버지는 47세에 목사님을 나았답니다. ‘무녀 독남’이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잘못된 것에 대하여 엄하게 매를 드셨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물었답니다.

“몇 대를 맞을래?”

그러면 목사님은 “한 대요”라고 대답을 했고,

그 한 대는 잊을 수 없는 아픔으로 각인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매를 들고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네가 잘못된 것은 그럴 수 있는 일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한다. 하지만 잘못된 거다. 네가 잘못된 것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너만 했을 때 보다 낫다. 하지만 잘못된 거다.”

징계는 분명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징계와 심판은 이해할 수 없고 서운하기만 한 것이죠.

미가 시대 거짓 예언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 괜찮을 것이라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들으면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진정 좋은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잘못되지 않습니다.

늘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신앙이 올곧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가 7장 9절의 말씀.

9. 내가 여호라게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갈까 . . .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 6장 6-8절 말씀.

6.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말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몫의 열매를 드릴까

8.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 (6-7절)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8절)이 얼마나 다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인간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란,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잡으면 가장 맛있는 소고기가 되겠죠.

인간들은 ‘천 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의 풍요함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 시대의 타락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 즉 ‘예배의 타락’입니다. J. D. 그리어의 책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에 보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 있는 행동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언제나 예배의 타락이 나타난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스트레스와 근심, 걱정, 다툼, 질투, 불만족이 모두 우리가 가짜 신을 위해 세운 제단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라고 말했다. 이 연기를 따라가 보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되거나 불완전한 시각이 나타난다.

- 남들에게 가혹하고 비판적인 편이라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탓이다.
- 주변 사회와 충돌하는 경우가 좀처럼 없다면 당신의 하나님은 초월적이지 않다.
- 걱정이 많다면 당신의 하나님은 선하고 지혜롭고 주권적인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다.
- 죄책감을 떨쳐 낼 수 없다면 당신의 하나님은 구속자가 아니다.
- 항상 신학에 관한 논쟁만 벌일 뿐 누구에게도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하나님은 구세주가 아니라 교수에 불과하다.
- 남들이 가진 것을 늘 부러워하면 당신의 하나님은 영광스럽지도 충분하지도 않다.

미가 선지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만든 신’을 경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른 길을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영광스럽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우리들을 만족시키는 우상을 섬길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인간들은 거짓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들을 가지고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합니다.

미가 6장 6-7절.

6.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맡아들은,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오해한 이들이 얼마나 힘든 길을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이 나쁜 의도가 아니지만, 그런 자신들의 행위들로 인해 얼마나 힘든 길을 가고 있는가?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냈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돌 볼’ 부담을 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제물을 받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춤을 추고,

자신들의 죄를 감추고 사하려고 몸을 학대해 보지만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창조해 자신들의 손에 넣었지만 ‘뜨거운 감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버릴 수도 없고, 갖고 있자니 인생이 버거워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제대로 된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의 축제가 되어버린 크리스마스가 그런 것을 아닐까요?

존 오트버그의 책 [인생, 영생이 되다]에 보면, 우리 신앙에서 착각하고 있는 ‘천국’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영화 속 천국은 누구나 가면 좋아할 쾌락의 나라다. 하지만 예수님이 밝혀 주신 내세의 삶은 영화 속 천국과 사뭇 다르다.”

천국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고 좋아하는 쾌락을 누리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천국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불행한 곳이 될 것입니다.

정말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를 짓기 위해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말이죠.

미국의 유명한 라스베이거스를 죄악과 환락의 도시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일어나는 일은 절대 라스베이거스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왜 미가의 말씀과 연결시키는 것일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죄’라고 생각하고 한 일들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했던 것들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의 가장 큰 오류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미가 6장 6-7절.**

6.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맡아듣은,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데, 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어떤 장소’에 나아가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묶어 놓으면, 그 하나님을 벗어난 곳에서 그들이 원하는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존 헨리 뉴먼이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다. 천국은 그 맛에 익숙해진 사람들만을 위한 곳이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아주 ‘배타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진정으로 천국에 가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죄에서 정결케 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일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제 미가가 말하는 요점이 무엇인지 확실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미가가 경고하고 있는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방법을 찾았지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다!”

미가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섬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 분을 내가 만들어 내 손안에 넣고 다닐지,

다른 하나는, 나를 낮춰 위대하신 그 분 앞에 엎드려 음성을 들을지.

내 손 안에 하나님을 넣고 다니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신이 나에게서 만족과 평안을 앗아가 버립니다.

그 분의 이끌림을 받으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분의 ‘통제’가운데 들어가지만, 인도하심 가운데 영혼의 평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 전, 건축가 이타미 준 미술관을 열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 분의 딸이 미술관을 건축했는데, 그곳에 있는 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에 가면 한 리조트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예배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90도로 꺾인 복도를 지나가야 하는데 두 번 허리를 숙여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타미 준은 크리스천이 아니었지만, 전능자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그 교회에서 딸이 결혼을 하는데, 머리를 숙이는 듯 두 번 깊이 생각하라고 했답니다. 지금이라도 이 결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도망가라고 아버지가 책임질 테니. . 사진 자료 있음)

예를 들어볼까요?

가톨릭 신자들은 손에 묵주를 가지고 다닙니다. 불교신자들도 염주를 가지고 다니죠.

기독교신자들은 목에 십자가를 걸기도 하고 귀걸이 혹은 작은 십자가를 가지고 다닙니다.

비행기를 타면 종종 묵주, 십자가, 염주를 만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손에 쥐고 있는 순간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아주 신앙적인 행위인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손에 쥐고 평안을 얻고, 실수로 떨어뜨리거나 잊어버리고 소유하지 않을 때 불안이 엄습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염려와 걱정을 맡기라고 말씀하시지, 그것들을 우리의 손안에 쥐고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손으로 꼭 쥐려는 행위가 믿음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꼭 맡기는 것이 믿음일까요?

믿음이란, 그 분을 믿고 그 분의 명령을 따르며, 그 분이 하시는 방법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때로 그러한 삶이 버거울 때도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도 있지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오늘 본문 **미가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가지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많이 쓰는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저 곳’에 두고, 나중에 갈 곳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곳’으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 내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우리가 나중에 만날 분, 저 곳에서 만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번거롭게 정의를 행하며 살겠습니까?

굳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곁끄러운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뭘 그렇게 겸손을 떨며 치사하게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서니, 나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법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할지. . .

오늘 말씀에 보니, 주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선한 것인지 보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함’

‘인자를 사랑’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함’

요즘은 그런 차이가 별로 없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휴대전화 회사에 따라 통화의 성능이 달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기지국’에 있었습니다.

통화가 잘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휴대전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한 원칙입니다. 우리 전화가 성능이 좋지 않으면, 꼭 필요한 연락을 하는 사람의 소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형록의 [W31-성경대로 세상 살기]에 보면, 전보가 장거리 이동 통신 가운데 가장 빠른 수단이던 시절에 모스 부호 회사 입사 시험에 응시했던 한 젊은이의 일화가 나옵니다.

한 젊은이가 인터뷰를 위해 회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커다란 사무실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에 주목했다.

그곳은 전보 치는 배경음을 포함해 온갖 소음과 잡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젊은이는 지원 양식 서류를 작성하고, 다른 7명의 응시자들과 함께 대기석에 앉아 있었다.

불과 몇 분 후, 갑자기 그가 벌떡 일어서더니 안쪽 고위 간부들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다른 응시자들은 무슨 일인가 궁금해 하며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들 중 몇몇은 자기는 아직 부름을 받지 못했다고 중얼거렸다. 그들은 젊은이가 실수로 사무실에 들어갔고, 그 행동으로 인해 부적격 응시자로 여겨지리라 미루어 짐작하기도 했다.

몇 분 후, 고용주가 젊은이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더니 다른 응시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원하신 자리는 충원되었습니다.

응시자들은 서로 불평하기 시작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말했다.

“잠깐만요, 이해가 안 되는군요. 그는 마지막에 도착했고, 우리는 아직 인터뷰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보는데요.”

그러자 고용주가 말했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몇 분 동안, 이런 전보가 모스 부호로 통신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메시지를 이해한다면 곧바로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당신이 채용될 것입니다.’ 이 응시자만이 모스 부호를 듣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채용된 것입니다.

그런 상상!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모스 부호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스 부호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주의함으로, 때로는 분별하지 못함으로, 때로는 우리의 일상에 분주함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미가 6장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NIV 성경에서는 ‘He has showed you,’라고 쓰고 있는데, 문법적으로 말하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예언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미가는 5장 2절에서 “**베들레헬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고 예언합니다.

그로부터 700년이 지나 동방의 박사들이 별 빛을 보고 베들레헬에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당도한 박사들이 헤롯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자신들이 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왕좌를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헤롯왕은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혹시라도 자신을 대신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시대에 태어난 모든 영아들을 학살하기 까지 합니다. 700년 전에 예언된 것을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 베들레헬에 오신 메시아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약속 말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서 시작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이신 일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와 싸워 이길 힘을 얻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아직 미완성의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세상을 바꾸어나가는 것입니다.

존 오토버그의 책 [인생, 영생이 되다]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오신 뒤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동안 사취한 모든 것을 네 배로 갚아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것이다.

이는 단순히 삭개오가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뜻만이 아니다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이 집에 오신 것이 곧 ‘저 위’가 ‘이 아래’로 내려온 것이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부패한 세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사취를 당한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 나가는 약속을 이루는 가장 명확한
표징이 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진심으로 믿고 가슴에 새긴 자들로 인해 이 세상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